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1. 29.(수) 배포즉시 배포 2023. 11. 29.(수)

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·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

- '25~'30년간 총 1,131억 원(국비 848억 원 등) 지원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는 11월 29일(수)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(위원장 : 과학기술혁신본부장)에서 "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·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"이 총사업비 1,131억 원(국비 848억 원)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* 뿌리산업 : 주조, 금형 등 뿌리기술을 통해 철강 등의 소재를 부품장비로 가공하는 기반공정 산업

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위해 뿌리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가운데, 선행 사업*이 내년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, 새로운 뿌리산업 전용 R&D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*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('20~'24년, 국비 1,065억원)

"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·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"은 2개 이상의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15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분야에 대해 향후 6년간('25~'30년) 집중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, 소재전환, 에너지·환경비용 절감 등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뿌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.

또한,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공통·핵심기술은 타기관에 이전(기술이전형)하거나 개발주체 간 공유(기술공유형)를 통해 기술개발의 결과가 뿌리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.

산업부 관계자는 "이번 사업을 통해 뿌리기업이 고부가가치 공정혁신을 구현할 자체 기술역량을 확보하고, 뿌리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공급망정책관 뿌리산업팀	책임자	팀 장	김등용 (044-203-4905)
		담당자	사무관	나한균 (044-203-490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『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·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』 개요**

□ **(추진배경)** 국내 제조업의 지속·안정적 성장 및 신흥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 등을 위해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

□ **(사업목표)** 수요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차세대 공통·핵심뿌리기술을 선제적 확보하여 뿌리산업의 부가가치 혁신

□ **(규모/기간)** 1,131.1억원(국고 848.3억원) / '25년 ~ '30년(6년)

□ **(수행주체)** 산업통상자원부 (전담기관: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)

□ **추진전략**

① **(수요반영 R&D 지원)** 미래 수요산업 대응 차세대 뿌리기술 개발

* 수요기업 니즈와 뿌리기술 유망성을 고려 선제적 기술개발 추진

② **(기술자산공유)** 산·학·연 공동 R&D를 통한 기술자산 공유로 뿌리산업 기술수준 향상

□ **(사업 주요내용)** 15대 공통·핵심 뿌리기술개발 R&D 과제 지원

○ 2개 이상의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"공통·핵심뿌리기술" 개발과 '부가가치 혁신'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 지원

① **(기술공유형 : 11대 과제)** 유사공정을 보유한 총괄·세부 주관기관들이 자신들의 핵심기술을 공유하여 각 기관별 생산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술을 협력하여 개발

② **(기술이전형 : 4대 과제)** 총괄기관이 공통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, 이를 세부주관기관에 이전하여 제품별 최적화된 공정기술 개발